

특별기고



문 병 옥
/장흥군의회 사무과장

지방의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에 있어서 정책적·입법적·의결적 기능 등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기관이다.

1991년 7월, 지방의회의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지 어느새 30여년이 지났다. 그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다.

특히, 작년에는 32년 만에 전부가 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주민의 참여권이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역량이 강화된 한편,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해지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도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다.

지방자치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출발한 것이며, 주권재민의 근본인 국민 여러분이 있기에 지방자치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장흥군의 회와 장흥군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장흥군민의 민의를 대표하

는 대표기관이자 행정을 견제하는 감시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삶에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 행복함은 왔다가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삶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내가 받는 것보다 남에게 주는 것이 크면 클수록 성공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장흥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에서 지방의회의 존재의 의미와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의 가치는 매우 크다 하겠다.

기초의회는 기초단체의 중요 사

함을 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최종심의·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예산·결산 승인을 비롯한 의결기능과 행정 사무에 대한 조제를 제정하는 입법 기능, 자치행정의 집행을 감시·감독하는 통제 기능,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청원을 처리하거나 자치단체와 의견을 교환하는 조정 기능을 한다.

장흥군의회 제9대 전반기 왕윤채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 주민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둘째 연구하고 공부하는 창의적인 자치 의회, 셋째 책

임있고 신뢰받는 의회, 넷째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연구해서 의정목표인 ‘공감받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끝으로, 지난 2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 및 기초의회) 중 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가 당당히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거뒀다.

다시 한번,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7분의 의원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더 열심히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기대한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열려 있으면 낭패, 닫혀 있으면 방패 ‘방화문’



신 좌 균
/장흥소방서 119안전센터

생명을 지켜주는 대단히 중요한 안전시설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출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여기에 고임장치를 설치해서 개방해 놓아 불과 연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열려 있는 방화문으로 인해 작은 화재가 대형화재로 이어지면서 많은 재산피해와 소중한 생명들까지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화재현장을 종종 보게 된다.

불이 나게 되면 화염과 연기를 피해서 신선한 공기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피난하게 되는데 이때 출입구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해야 한다.

이유는 불이 번지는 것과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서 재산피해를 줄이고 건물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방화문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7항1호에 의거 방화문 시설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금의 편의를 위해 막대한 인명,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

하고 항상 방화문을 닫아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겨울철 난방기구 화재 사전에 예방하자



김 현 석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입력을 사용하는 가정이 많은데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경우는 19건 중 7건이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난방기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많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본격적으로 난방기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알아보자.

첫째 난방기구 주변에는 인화성 물질이 없는지 체크하자.

인화성이 높은 물질은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난방기구의 오작동이나 넘어짐으로 인하여 인화성 물질만 주변에 두지 않더라도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전기콘센트는 먼지가 쌓이지 않게 청소하자.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은 과전류로 인한 화재도 많지만 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화재도 많다.

일년에 한번, 그것도 겨울이 오기 전에는 전기콘센트, 분전반 내부는 꼭 먼지가 쌓인 것을 청소하도록 하자.

셋째 항상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에 대응하도록 하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항상 잘할 수는 없다.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고, 실내 공기를 대위주는 난방기구는 겨울철 화재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오늘은 겨울철 화재의 주요 원인인 난방기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려 한다.

2022년 난방기구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는 2488건이나 된다.

그중 가장 화재출동이 많았던 기기는 화목보일러로 222건이나 되며, 전기히터 142건, 전기장판, 담요 등이 123건으로 나타났다.

화재발생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986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834건이었다.

난방비 절약을 위해 가정용 화목보

불이 나게 되면 화염과 함께 연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발생한 연기 속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여러 종류의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인 연기의 이동 속도는 2~3m/s로 사람의 보행속도인 0.5m/s보다 훨씬 빠르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한 건물 내부에서 연기 이동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방화문은 불이 번지는것을 막아주고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 줌으로써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를 줄여주고 피난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알아봅시다	
병원응급실	교통안내
▲ 전대병원 220-5114	▲ 버스터미널 360-8114
▲ 조대병원 220-3114	▲ 광주공항 940-0214
▲ 기독교병원 650-5000	▲ 대한항공 384-9660
▲ 보훈병원 602-6114	▲ 아시아나항공 607-6310
▲ 광주한국병원 380-3000	▲ 철도안내 1544-7788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nmae.co.kr
발행·편집인 고계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 장 실 (062) 363-0027	편 집 국 장 (062) 363-8800	
광 고 국 (062) 363-0005	정 · 경 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 회 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 체 부 (062) 362-6116	
인쇄저널프린테크 (062) 943-0140	지 역 사 회 부 (062) 362-6226	
구독료 연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 망 새 언 론 새 천 년



푸른언론의 길을지향하는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하는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신문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 · 독자 의견 • TEL : (062) 363- 8800
- FAX : (062) 362-0078

-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인터넷 참여 : <http://www.honmae.co.kr>

-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eil@naver.com

지국안내

총 장.....223-4123
무 등.....224-4188
동 부.....234-4235
학 등.....225-0651
광 천.....374-2120
화 정.....374-3713
금 호.....376-7153
생 촌.....371-9584

상 무.....381-5310
서 부.....651-0004
송 암.....362-4102
농 성.....362-4102
진 월.....671-7276
봉 선.....675-5530
중 앙.....521-5640
중 흥.....433-1503
양 산.....574-3745
운 암.....521-4270

오 치.....261-9461
문 흥.....261-9462
일 곡.....573-3200
동 운.....525-8994
두 암.....266-1920
침 단.....971-1920
신 창.....955-0451
월 곡.....941-9174
송 정.....010-5524-3638

지사안내

목 포...010-8718-1234
순 천...010-9656-1383
광 양...010-9656-1383
담 양...010-3602-3550
곡 성...010-2632-4504
구 레...010-8597-0053
부 성...010-3626-4776
화 순...010-2430-5055

영 광...010-9860-5489
완 도...010-5066-4708
장 흥...010-5665-8354
신 안...010-3610-9153
강 진...010-3775-2369
장 성...010-3610-7824
무 안...010-9271-8517
여 수...010-8587-2288

함 평...010-3095-5842
영 암...010-4604-3742
진 도...010-8525-4567
해 남...010-3471-6542
광 산...010-7613-4320
고 흥...010-4644-8383